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2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글로벌 투자자, 중국 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주목

- 선전증권거래소는 5월 19~20일 '2025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'를 개최, 중국의 신질적 생산력 발전 및 인공지능(AI)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혁신과 관련된 19개 국가(지역) 400여 명의 금융계 대표가 참석
 -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싱즈창(邢自強)은 최근 중국은 첨단제조업·자율주행·신에너지 등 분야의 경험을 누적,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,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관련 기술 및 부가가치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밝힘. 또한 AI 산업은 글로벌 투자자의 중국기업 혁신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했으며, 해외자금의 중국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
 -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최고투자책임자(CIO) 안주희(安珠姬)는 최근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, 중국은 생산과정에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·로봇·청정에너지·바이오기술 등 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및 정밀제조업 종사기업은 지속적으로 중국 내 발전을 선택할 것으로 분석
 - AI, 바이오의약 등 분야의 참석자들은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점차 중국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,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

자료원 : 경제참고보

<http://www.jjckb.cn/20250521/cc8b4766d004bd3a19b01f94a03d426/c.html>

2 제34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방문객 16.7만 명 기록

- 최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는 '제34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(5/17~21)'를 개최, 올해 전시면적은 68만 평방미터로 38개 국가(지역)의 1,500개 기업이 참가, 방문객은 16.7만 명을 기록
 - 주요 전시품은 자율주행, 상업용 위성,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·신제품이 15%를 차지, 저공경제, 라이브커머스, 실버경제 등 신업종·신모델 제품이 17%를 차지
 - 헤이룽장성 과학기술청 관계자는 올해 '신질적 생산력'을 주제로 휴머노이드 로봇, 저공경제, 인공지능, 우주항공, 신소재, 첨단장비 등 핵심전략 신산업 및 미래산업 전시구역을 설치하여 차별화를 꾀했다고 밝힘

〈제34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현장 사진〉



자료원 : 중국신문망, 신화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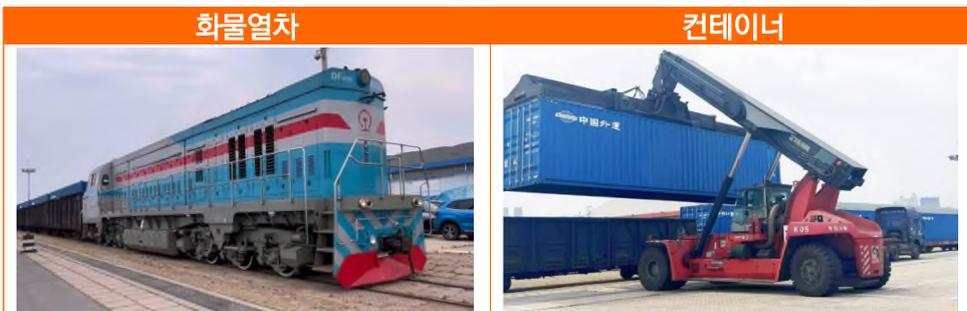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832731381084114961&wfr=spider&for=pc>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832893040479165722&wfr=spider&for=pc>

3 中, 국경간 해상·철도 복합운송 화물열차 운행 개시

- 최근 한국의 상용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적재한 국경간 화물열차가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로 향했으며, 이는 초상국그룹 산하 중국대외무역운수회사와 국가철도그룹이 공동 추진한 국경간 해상·철도 복합운송 화물열차의 정식 운영을 의미
- 화물은 한국 인천항에서 출발해 옌타이항에 도착한 후 철도운송으로 신장(新疆) 카스(喀什) 통상구에 도달, 다시 도로운송으로 키르기스스탄까지 운송되며, 운송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4일 내외로 단축
- 이번 ‘국제 해상운송 + 국내 철도운송 + 말단 도로운송’의 원스톱 물류서비스는 국경간 화물 운송 효율을 극대화했으며,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및 일본산 제품에 보다 안정적·효율적이며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전망

〈국경간 해상·철도 복합운송 화물열차 및 컨테이너 사진〉



자료원 : 광명망

https://economy.gmw.cn/2025-05/20/content_38036143.htm

4 中, 신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50건 발표

-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 2호 공고를 통해 식품 라벨, 특수식이식품, 생산경영규범, 영양강화제, 식품첨가제, 검사방법 등 관련 신규 식품안전 국가표준(50건)과 개정 표준(9건)을 발표
- 구체적으로는 △‘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’ 등 식품 라벨표준 2건, △‘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’ 등 특수식이식품 표준 3건, △‘발효 유제품’ 등 식품 표준 4건, △‘가공육제품 생산위생규범’ 등 생산경영규범 표준 3건, △‘소독제’ 등 식품 관련제품 표준 1건, △‘식품영양강화제

EDTA 철나트륨' 등 식품 영양강화제 품질규격 표준 4건, △'식품첨가제 루테인' 등 식품첨가제 품질규격 표준 4건, △'식품 중 안티몬 측정법' 등 검사방법 표준 29건, △'멸균 유제품' 등 개정 표준 9건임. 상기 표준은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(<https://sptt.cfsa.net.cn:8086/db>)을 통해 확인 가능

- 이 중 △'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'은 디지털 라벨 표시 요구를 추가, △'특수의학용도 영유아용 조제식품 통칙'은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, △'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'은 제품 종류를 확대, △'소독제' 표준은 사용원칙 및 사용방법을 추가

자료원 : 중국 정부망

https://www.gov.cn/lianbo/bumen/202503/content_7015813.htm

5 7월 1일부터 '의약품 생산허가증' QR코드 관리 시행

-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디지털을 통한 의약품 생산 및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'의약품 생산허가증' 발급 관련 아래의 공지를 발표
 - 2025년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'의약품 생산허가증'은 전자허가증 QR코드 형식으로 관리, 종이허가증 및 전자허가증에 각각 QR코드를 표기. 의약품 생산허가, 변경, 위탁·피위탁 생산 등 정보는 관련 업무 완료 후 5일 이내에 생산허가증 관리시스템에 등록
 - 2026년 1월 1일부터 QR코드 스캔 시 기업정보, 공장, 생산라인, 위탁·피위탁 생산, 변경 기록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적시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. 의약품 관리감독기관 및 전문기술기관은 전자허가증 QR코드 정보로 의약품 심사평가, 검사 등의 업무를 진행

자료원 :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

<https://www.nmpa.gov.cn/xxgk/fgwj/gzwl/gzwljyp/20250407103432127.html>

<https://www.nmpa.gov.cn/xxgk/zhcjd/zhcjdy/20250407104721147.html>

6 중국 내 기업의 수입산 의료기기 생산규정 개선

- 수입산 의료기기의 중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3월 17일부터 '중국 내 기업의 수입산 의료기기 생산규정 개선 공고(2025년 30호)'를 시행
 - 지난 2020년 9월부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'중국 내 기업의 수입산 의료기기 생산규정 공고(2020년 104호)'를 시행, 수입산 의료기기 인증업체가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2등급, 3등급 수입산 의료기기 생산 시 적용해왔음
 - 이번 공고는 '외국인 투자기업'을 과거 수입산 의료기기 인증업체에서 수입산 의료기기 인증업체 혹은 인증업체와 동일한 실질지배인을 보유한 업체로 변경하고, 증빙서류 및 수권서를 제공하도록 규정
 - * 실질지배인 : 투자 관계,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
 - 이 외 인증 신청서류 및 심사 관련 요구사항을 개선하고, 수입산 혁신 의료기기 생산에 대한 제품 인증, 생산허가증 발급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발표

자료원 :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

<https://www.nmpa.gov.cn/xxgk/ggtg/ylqxxggtg/ylqxqtggtg/20250318152218159.html>

<https://www.nmpa.gov.cn/xxgk/zhcjd/zhcjdy/20250318152833181.html>